

3. 국내외 생태문화도시 적용 사례

도시생태계는 사람이 건설한 인간과 자연으로 구성된 인공생태계로 도시 속의 자연요소인 야생생물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평형이 깨지거나 인간의 간섭에 대응하여 적응하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에 의해 환경문제가 주목되기 시작하면서 도시 생태학의 기본개념을 인간사회에 적용하고 도시환경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태도시와 도시계획요소, 최소생태기준달성 등이 나타났다.

국내외 많은 도시들이 구체적으로 인간의 활동을 자연환경과 해롭지 않게 통합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개발을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인간적도의 정주성이 높고 생태계의 다양성, 안정성, 탄력성에 바탕을 두어 도시를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유지하려는 도시계획요소를 수립하였다. 또한 도시의 문화를 고려하며 시민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태문화도시와 도시의 기존 자연에서 생태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에서 보다 다양한 창조적인 도시를 담고자 창조문화도시 등 새로운 도시의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 국외 생태문화도시 사례

독일 프라이부르크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는 도시로 변신하였으며, 녹지 확보, 자전거 중심 교통 체계, 도로포장 최소화 등 에너지 절약운동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실천하고 있다.

핀란드 비키는 대부분의 건축물의 벽면과 지붕에 태양열집열판을 설치하고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브라질의库里치바는 환경을 생각한 교통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급